

당하고 있었고 심지어 군대 사무를 주관했는데 지위와 대우는 무장보다 높았다. 무장은 여러 방면의 견제를 받았는데, 병사를 거느리고 전쟁할 때 조차 조정에서 사전에 가르쳐준 “진형도”에 따라 군대를 포진해야 했는데 이는 군대를 통솔하는 데서의 지휘권을 엄중하게 속박하는 것이었다.

송조는 문화교육 사업을 중시하여 과거제를 개혁하고 발전시켰다. 송초에 과거를 통해 벼슬을 시키는 정원을 대폭 늘이고 진사의 지위를 높였는데, 진사는 관직을 우대하였을 뿐 아니라 승진도 빨랐다. 과거제도의 발전은 송조 사회에 심원한 영향을 주었고 전국적으로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문화 역량의 제고가 전체적으로 촉진되었으며 송조의 과거제 발달, 문화 창성, 인재 배치의 문치 국명을 조성하였다.

송조의 重文輕武 정책은 오대십국 시기의 崇武輕文의 기풍을 돌려놓았고 무장의 발호와 군사 정변이 발생하는 상황을 철저히 막아 정권의 공고와 사회의 안정에 유리하였다.

제 7과 요·서하와 북송의 병립

- **거란족과 탕구트족:** 수당시기 북방에서 유목하던 거란족은 한족과 경제, 문화적 관계가 날로 밀접해졌다. 당조 말년 북방의 한족들은 끊임없이 북쪽 장성을 넘어 중원의 선진적인 생산 기술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피난갔다. 9세기 후기에 거란은 이미 농경과 제철, 방직 등 산업을 가지게 되었을뿐더러 또한 가옥과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10세기 초에 거란족 수령 야율아보기는 거란의 각 부를 통일하여 정권을 세웠는데, 도성을 상경임황부(上京臨潢府)에 두었다. 야율아보기는 건국 후 생산을 발전시키고 문자를 창제시켜 국력은 부단히 신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서북지역에서 생활한 탕구트족은 원래 姜族의 한갈래였다. 당대에 감속성 동부와 섬서 북부 일대에 집중해 있었던 탕구트족은 중원문화와 접촉이 많아지면서 사회 생산이 어느정도 발전하였다. 11세기 전기 탕구트족의 수령 元昊 大夏의 황제라 칭하고, 흥경부에 수도를 정하였다. 역사에서 이를 西夏라고 한다.元昊는 당송 제도를 답습하여 관제와 군제, 법률을 정하였다. 동시에 황무지 개간을 권장하여 농목경제를 발전시켰으며 또한 서하문자를 창제하였다.

- **요와 북송의 화친과 전쟁:** 요는 태종때에 燕云 16주를 점령했는데 이때부터 요와 중원왕조의 충돌은 격화되었다. 송태조 말기 북송은 요와 우호관계를 유지했고 서로 사절을 보내기도 했다. 송태종 즉위 후 요를 향해 수 차례 전쟁을 일으켰지만 실패하여 방어 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송진종 때에 요군이 대거 송을 공격했는데, 황하강 기슭의 瀧州城 밀까지 공격하여 도성 개봉을 위협하였고 북송 조정은 공포속에 빠지게 되었다. 재상 寇準 황제가 친히 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하여 송진종은 마지못해 瀧州城까지 오게 되었고 송군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어 요군을 물리치게 되었다. 이후 요와 송은 화의를 맺고 요군은 철수하였고, 송은 요에게 매년 세폐를 주었다. 瀧州를 이전엔 瀧淵이라 불렀기에 이 송요 맹약을 “瀧淵의 맹”이라 부른다. 이 후 오래동안 송과 요는 평화적인 국면을 유지했다.

- **서하와 북송의 관계:** 元昊는 황제가 된 후 여러차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북송을 공격했다. 송조는 피동적으로 맞기만 하면서 연속 패배했고, 손실은 막중했다. 서하는 비록 군사적으로는 매번 승리를 거두었지만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돼 인력과 물자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해마다 전쟁을 하여 서하도 매우 큰 손실을 입었고 인민들은 고통속에 빠지게 되었다. 후에 북송과 서하는 강화 담판을 하여 송하는 평화 조약을 맺었다.元昊는 송에 칭신하고 송은 서하에게 세폐를 주었다. 강화를 한 후 송과 서하의 변경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제 8과 금과 남송의 대치

- **여진족의 굴기:** 여진족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민족 중의 하나로 흑룡강 유역과 장백산

일대에 거주하였으며 유목과 어렵생활을 하였다. 요송시기 여진족은 요의 압박과 통제를 받았다. 당시 여진족은 많은 부락이 있었는데 그중 완안부가 많은 부족을 겸병하였다. 11세기 말 완안부의 수령 아골타는 한층 더 여진족의 각 부를 통일하였다. 이때부터 여진족은 역량은 부단히 강해졌다.

12세기 초기 아골타는 군사를 일으켜 요와 맞서 싸워 요군을 연이어 격파하였다. 1115년 아골타는 정식으로 여진 정권을 세웠고 국호를 “大金”이라 하였는데, 그가 바로 금태조이다. 금태조는 중원제도를 모방하였고 여진부락의 군정 체제를 개혁하였다. 여진 문자를 반포, 시행하였고, 생산을 발전시켜 여진 세력은 신속히 성장하였다.

○ **금이 요와 북송을 멸망시킴:** 여진이 마침 굴기하고 있을 때에 요와 북송의 통치는 오히려 위기에 놓여있었다. 통치자들은 부패하고 무능했으며 인민들의 봉기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마친 금군은 요의 일부 지역을 점령한 후 북송은 금의 세력을 빌려 요에 의해 점령당했던 失地를 수복하고자 했다. 그래서 사절을 파견하여 금과 연락을 취하였고 쌍방은 요를 공격하기 위한 맹약을 체결한다.

북송은 출병하여 요를 정벌하려고 하였으나 요군에 의해 크게 대패하게 되었다. 그러나 금군은 오히려 파죽지세로 요의 도성과 많은 지역을 차례로 공격하여 점령했다. 1125년 요는 금에 의해 멸망당한다. 금은 북송과 연합하여 요를 공격하는 과정 중에 북송의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군사적으로 무능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요를 멸망시킨 후에 북송과의 전쟁을 일으켰다. 금군의 강대한 공세를 직면한 송희종과 송흠종은 싸울 생각은 안하고 타협과 강화만 하려고 했다. 1127년 금군은 개봉을 함락시켰고 북송은 멸망했다.

○ **남송의 偏安:** 북송이 멸망한 후 송흠종의 동생 趙構가 황위에 올랐는데 조구는 바로 송고종이다. 후에 臨安을 수도로 정했는데 이를 역사적으로 남송이라 부른다. 남송초기 금군은 몇 차례 대거 남하하였는데 남송의 군민이 일어나 저항하였다.

악비 등 금에 저항하려는 장령들은 군을 이끌고 북벌하여 금군으로부터 많은 失地를 수복하였다. 악비가 통솔하는 ‘악가군’은 鄜城에서 금군의 주력부대를 크게 격파하였고 승승장구하면서 추격하여 금군을 철수하게 하였다. 중원을 수복할 가망이 보일 때 송고종과 권신 진회는 항금 역량이 커져 그들이 통치를 위협하는 것이 두려워 금에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악비에게 회군할 것을 명령하면서 “아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 악비를 살해하였다. 송과 금은 화의를 한 뒤, 남송은 금에게 칭신하였고 함께 금에게 세폐를 주었으며 쌍방은 淮水로부터 大散關에 이르는 일선을 분계선으로 확정하여 송과 금의 대치 국면이 형성되었다. 후에 금은 연경으로 도읍을 옮기고 이름을 中都로 고쳤다. 남송 통치자들은 현실에 만족하면서 강남의 한 구석에 안주(偏安)하였다.

제 9과 송대 경제의 발전

○ **농업의 발전:** 동한후기부터 강남의 사회경제가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 당조 중·말기부터 남송시기까지 남방의 전란은 비교적 적은 데다 대량의 북방인구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선진적인 생산기술을 가져감으로써 남방의 농업발전속도가 빨라졌고 점차 북방을 능가하게 되었다. 송조때부터 경제의 발전은 한층 더 湘江이서로 확장되었으며 동시에 강서, 복건, 광둥·광서의 양광 지역도 매우 크게 개발되었다.

남송, 북송 시기에 인구가 늘어나고 경작면적이 확대되고, 경작기술이 제고되면서 농업에서는 전례없는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남방의 벼재배면적이 신속하게 늘어났다. 베트남으로부터 들어온 참파(Champa)벼는 빨리 성숙되고 가뭄에 잘 견디었기에 북송시기에 동남지역까지 보급되었다. 남방의 농민들은 또 많은 우량품종을 육성해 벼 생산량을 크게 높였다. 송조 조정의 대대적인 장려하에 남방의 벼는 북방에서도 비교적 많이 보급되었다. 송조때에 벼생산량은 일약 식량 농작물 중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 장강하류와 태호 유역 일대가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되면서 이곳에는 “소주의 호수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해진다”, “소주와 상주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해진다”는 속담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송대의 경제 작물재배는 남방에서 매우 큰 발전을 이루었다. 남방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차나무가 재배되었으며, 차를 생산하는 주, 현은 전보다 다소 많아졌다. 북송때부터 남송 초기에 이르기까지 목화재배지역은 광둥과 복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남송후기에 와서는 북쪽으로 장강, 회화, 유역과 사천일대까지 보급되었다.

- **수공업의 흥성:** 남송, 북송 시기 남방의 수공업은 더없이 번영하였는데 방직업, 도자기제조업, 조선업에서 특히 성과가 두드러졌다. 북송때 남방의 견직업은 북방을 앞섰다. 사천, 강소 절강 지역은 견직생산이 발달하였다. 남송후기에 면방직업이 흥기하였는데, 해남도에는 이미 비교적 선진적인 면방직도구가 있었고, 면방직품 종류가 비교적 많았다. 송조는 중국 도자기 발전사에 찬란한 시대였다. 하북의 定窑, 하남의 汝窑 등지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였다. 북송때 흥기한 강서의 경덕진은 후에 유명한 도자기 도시로 발전하였다. 남송때 강남지역은 우리 나라 도기제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광주, 천주, 명주의 조선업은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 세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북송의 동경 교외에는 세계 최초의 항만시설 도크가 건설되었다. 남송때 연해지역에서 제조된 해선들은 규모가 매우 크고 설계가 과학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남침도 장치되어 있었다.

- **상업무역의 변영 :** 송조때 상업의 변영은 전대를 초과하였다. 그때 황하, 장강 연안과 운하 연안에서는 많은 상업도시들이 생겨났다. 가장 큰 것은 개봉과 항주였는데 인구가 무려 백만명에 달하였다. 도시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상업이 날로 번성해지면서 도시속의 가게가 부단히 늘어났고 거리와 골목 안은 어디에서나 가게를 낼 수 있었다. 장사하는 시간도 더 이상 제한을 받지않아 새벽시장과 야시장이 나타났다. 도시의 상업무역활동은 진과 향까지 퍼져나가면서 草市라는 새로운 상업구가 형성되었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읍(市鎮)도 중요한 상업무역구로 발전하였다. 당시 시장에는形形色색의 각종 상품들이 가득하고 상인들이 끊임없이 오갔는데 변영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송조의 해외무역도 전대를 초과하였는데 당시 세계에서 해외무역에 종사하는 중요한 나라가 되었다. 광주, 천주는 세계에서 이름난 큰 상업항구였다. 중국 상선의 자취는 가깝게는 조선, 일본에 닿았고, 멀리로는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동해안에 이르렀다. 해외무역을 권장하던 조정은 주요항구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남송의 대외무역소득은 재정수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상업무역의 변영은 화폐교역량의 증가도 촉진하였으나 오래동안 시장에서 유통된 것은 금속화폐였으므로 휴대하기에 매우 불편하였다. 북송전기에 사천지역에서 '交子'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세계 최초의 지폐였다. 남송때에 지폐는 동전과 같이 쓰는 화폐가 되었다. 당조중기부터 시작된 경제중심의 남쪽으로의 전이는 남송때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그때 중앙의 재정수입은 주로 남방에서 특히 동남지역에서 들어왔다.

★ 2020년 7월 25일 월례발표회(동국대학교) ★발표자 : 우성민(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명:『中國歷史』七年級下冊(인민교육출판사, 2016,1쇄)(2016년 교육부검정)

제2단원 요송하금원시기 : 민족관계발전과 사회변화

제 10 몽골족의 흥기와 원조의 수립

북송, 남송과 요, 서하, 금 시기에 몇몇 민족정권이 대치하였다. 중국의 재차 통일로 인해 몽골족이 세운 왕조가 완성되었다. 북방 초원에 살고 있던 몽골족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또 어떻게 전국을 통일하였을까?

○ 칭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다 : 몽골족은 중국 북방의 오래된 민족이다. 본래 대흥안령 북단에서 생활하다가 후에 서쪽으로 옮겨 초원지역으로 들어갔다. 몽골족은 기마와 활쏘기에 능하여 물과 풀을 찾아 거주하는 유목생활을 하였다. 12세기 경에 몽골초원에는 많은 부락이 분포되어 있었는데 서로 인구와 목초지, 수원, 가축을 쟁탈하기 위해 빈번한 전쟁을 일으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초원이 통일되어 전쟁이 끝나길 갈망했다. 몽골족 각 부족에 대한 통일은 테무진이 완성하였다. 유년 시절의 테무진은 아버지가 부족간의 분쟁에서 세상을 뜨게 되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오로지 초원의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야만 초원에 평화를 가져와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부족을 거느리고 여러차례 출정하여 초원의 여러 강대한 세력들을 하나하나 격파한 테무진은 1206년에 몽골초원이 통일을 완성하고 몽골정권을 세웠다. 그는 대칸으로 옹립되고, 칭기스칸이라는 존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몽골이 서하와 금을 멸망시키다

칭기스칸이 몽골군대를 이끌고 먼저 서하를 공격하자 서하는 금조를 향해 지원을 요청하였다. 서하와 금이 서로 분쟁하고 있었기에 금의 황제는 서하의 지원요청을 거절하였다. 몽골군대의 공격하에 1227년에 서하는 멸망하였다.

칭기스칸이 군대를 이끌고 서하를 공격할 때 六盤山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임종직전에 송조경내의 길을 빌려 금을 공격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후 몽골과 남송은 맹약을 맺고 남북으로 금을 협공하였다. 1234년에 몽골은 금을 멸망시켰다. 금이 멸망한 뒤 남송과 몽골이 직접 대치하는 국면이 형성되었다. 몽골군은 남하하여 남송을 공격하였는데 쌍방간의 전쟁은 전후로 40여년이나 지속되었다.

원조의 수립과 통일

쿠빌라이는 칭기스칸의 손자로 1260년에 그는 칸의 자리를 계승하였다. 쿠빌라이는 한족 유신(儒臣)들이 제안한 “한족의 법을 실시하고”, “인정을 베풀고”, “잔인한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건의를 받아들이고, “치국안민(治國安民)”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누구나 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였고 관리들의 치적을 바로잡았으며 농업과 양잠업을 중시하였다. 그는 중원왕조의 통치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기구를 설립하고 연호를 제정하였다.

1271년 쿠빌라이는 국호를 원으로 바꾸고 다음해 대도(大都)에 도읍을 정하였다.

원조는 수립된 후 계속하여 남송을 공격하였다. 1276년 원군이 남송의 도읍 임안을 함락하자 남송은 멸망되었다. 남송의 대신 육수부(陸秀夫), 문천상(文天祥) 등은 남쪽으로 도망한 도망한 남송의 황실성원을 옹립하면서 계속하여 항원(抗元) 투쟁을 벌였다. 1279년에 원군은 남송의 잔여세력을 멸망시켰다. 원조는 남송을 멸망시키고 전국 통일을 완성하여 우리나라(중국)역사상 비교적 장기간 분열되었던 할거 국면을 종결하고 통일된 다민족국가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하여 기초를 닦았다.

제 11과

원조의 통치

중국 고대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인 원조는 통일된 다민족국가의 발전에 심원한 영향을 주었다. 원조의 강역을 매우 광활하였다. 원조의 통치자들은 이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원조는 행정제 도면에서 또 어떤 새로운 기여와 발전이 있었는가?

원조는 우리나라(중국)역사상 처음으로 소수민족 귀족을 위주로 수립된, 전국적으로 통일된 왕조다.

원조의 강역은 “북쪽으로는 음산(陰山)을 지났고 서쪽으로는 류사(流沙)에 이르고 동쪽으로 요좌(遼左)에 달했으며 남쪽으로는 해표(海表)를 넘겼다”는바, 한조나 당조의 강역을 초월하였다. 오늘날의 신강, 서장, 운남, 동북의 광활한 지역, 대만 및 남해지도 등은 모두 원조의 통치범위에 속하였다. 원조의 판도는 우리(중국)역사상 가장 광활하였다.

행정제도

원조가 수립된 후 쿠빌라이는 한족지식인들의 도움하에 중원의 역대왕조의 통치방식을 참조하여 군주전제의 중앙집권제도를 점차 확립하였다. 중앙에서는 중서성이 전국의 행정사무를 관할하였고 산하에 이부, 호부, 예부, 형부, 공부 등 6부를 두어 제반 정무를 나누어 관리하게 하였다.

추밀원을 설치하여 전국의 군사사무를 책임지고 전국의 군대를 관리하게 하였고 어사대를 설치하여 감찰사무를 책임지게 하였다.

원조는 산둥과 산서, 하북을 “복리(腹里)”라고 불렀으며 중앙의 중서성에서 직접 관리하였다. 토번, 위구르(畏兀兒)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에는 영북(嶺北), 요양(遼陽), 하남(河南), 섬서(陝西), 사천(四川), 감숙(甘肅), 운남(雲南), 강절(江浙), 강서(江西), 호광(湖廣) 등 10개 행성을 설치하였다.

행성의 아래에는 전 조대의 제도를 이어받아 로(로), 부(府), 주(州) 현(縣)을 설치하였다. “행정제도”라고 불린 이러한 행정 구획과 관리 제도는 역사적으로 심원한 영향을 주었다.

변강지역에 대한 원조의 관할

광활한 강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원조의 통치자들은 강지의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동북, 서북, 동남, 서남 등 지역에 상응한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중앙의 이러한 지역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동남 지역에서 원조는 팽호(澎湖)지역에 팽호순검사(巡檢司)를 설치하여 팽호와 대만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이는 역사상 중앙왕조가 정식으로 대만에 설치한 첫 행정기구이다.

몽골 통치자들은 과거에 남송을 공격하는 동시에 서장지역에 출병하면서 서장을 귀순시키려 하였다. 후에 몽골대표는 토번의 상층에 있는 정치 및 종교 대표들과 함께 토번의 각지는 몽골에 귀순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후에 몽골 통치자들은 티벳에서 호구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역참을 설치하였다. 원조는 수립된 후 티벳지역에 대한 행정관리권을 행사하면서 이 지역을 하나의 단독적인 행정구로 삼았다.

이 지역은 선정원(宣政院)에서 직접 통괄하면서 티벳의 군사, 민정 각 사무를 관장하였다.조정에서는 또 해당지역에 지방기구를 설치하여 부세를 징수하고,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완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실행하였다. 이로부터 티벳은 정식으로 중앙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지방행정구역이 되었다.